

중국, 대만과 농업교류 추진

최근 중국과 대만(해협양안이라 칭함)간의 농업부문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04년 11월10일 오전, 중국 농업부 부부장(차관) 니우둔(牛盾), 농업부 대만사무관공실 주임, 해협양안농업교류협회 회장 위융웨이(于永維) 및 유관업무국의 책임자와 대만의 양안농업교류방문단은 베이징에서 양안간 농업협력 강화 등 문제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니우둔 부부장은 “20세기 1980년대에 양안의 농업계가 접촉을 시작한 이래 쌍방은 광범위한 교류를 전개해왔다. 과수, 채소, 열대작물, 목축 수의, 식물검역, 어업, 식품가공 및 생물기술 등 영역에서 풍성한 성과가 있는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였다. 양안간의 경제관계에서 농업교류와 협력이야말로 모든 산업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지속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니우둔 부부장은 “양안간 농업교류와 협력은 광활한 발전 공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만당국이 완고하게 ‘대만독립’이란 분열 입장을 견지하고, 게다가 인위적으로 현재와 같이 직접적인 3통(三通: 통신(通信), 통상(通商), 통항(通航))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양안의 농산물 무역이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이는 양안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만농민의 권익에도 위배되는 일이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니우둔 부부장은 “새로운 세기, 조국 대륙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목표로 확립하였으며, 힘을 합쳐 국력을 증강시키고, 시장

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고, 13억 인구의 대시장이 고품질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왕성해지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만농업계와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며, 아울러 ‘대만독립(台獨)’의 분열행위에는 공동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또한 양안 농업의 우수성에 따른 상호보완과 원-원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 역설하였다.

이어 중국농업부 유관부서 국장들은 중국의 농업생산과 정책 현황을 대만방문단에게 설명하였다.

중국 농업부 부부장의 발언에 다소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이슈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양안간의 농업교류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민간부문의 농업교류의 바탕위에 정부부문의 직접적인 교류가 시행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http://www.agri.gov.cn/xxlb/t20041110_270814.htm에서
(정정길cgchung@krei.re.kr 02-3299-43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